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주거시설 안전 확보 사업 추진



왼쪽부터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유종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노진명 한국건설갈리협회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1일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와 건단련은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보수·보강 지원사업 추진시 꼭 필요한 시설이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상일 회장은 “그동안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에 소홀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질적인 안전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